

# 함평 축산업자들 불법퇴비 만들어 농가 판매

### 무허가 업체, 성분 검증안된 비료 수십씩 생산

### 수확량 감소 등 피해도...당국 지도·단속 시급

가을 영농철을 맞아 비료관리법에 규정한 보증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 가축분퇴비가 함평지역 곳곳에 살포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군과 지역농가 등에 따르면 함평군 관내에는 유기질비료등 17개

의 비료생산이 등록돼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축분뇨로 '부속유기질비료' 퇴비생산업등록업체는 4곳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축산업자들이 자신의 축사에서 나온 축분을 비료관리법에 규정한 비료생산업등록 허가 없이 왕겨와 톱밥을 섞어 인근 농가

에 일정금액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료관리법에서는 개인축산업자는 축분 비료를 하루 평균 1.5t 이하만 생산·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개인업자들이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비료생산업 등록 허가 없이 분뇨 등을 수거해 일정기간 숙성시킨 뒤 2.5t 차량 1대에 약 12만~15만원의 비용을 받고 전민적으로 농가에 팔아넘기고 있다. 봄·가을 성수기에는 명함과 스티커까지 만들어 영업을 하

면서 함평지역에서만 수십의 불법퇴비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농가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증성분이 입증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퇴비를 사용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성분이 불명확한 불법퇴비의 경우 토양 산성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심한 악취와 수질 오염 등 농촌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 가축분퇴비가 농

가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함평농협이 추진중인 함평군 순환자원화센터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가을철 작물과중에 따른 농가의 퇴비 사용이 크게 늘고 있어 최근 읍·면에 비료관리법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읍·면에서 불법퇴비 살포와 유통거래 등 불법영양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을 확인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 진도 서망항 꽃게 풍년

### 40여척 하루 위판량 8~10t...올해 95억 매출

진도 서망항이 가을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조도면 외방·독거도 일원에서 끌어 올리는 그물마다 제철을 만난 꽃게로 가득하다. (사진)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4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 적당 250마리의 꽃게를 잡아 하루 위판량은 8~10t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꽃게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꽃게가 10월 중순 현재 522t으로 95억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진도 해역의 꽃게 어획량은 지난 2009년 243t(34억원), 2010년 769t(97억원), 2011년 930t(142억원), 2012년 890t(132억)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한 조도면 해역은 갯바위 모래층으로 형성되면서 꽃게의 서식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4년부터 바다 모래채취를 금지한 바 있다.

꽃게 잡이 어민들은 "요즘 꽃게가 워낙 많이 잡혀서 새벽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해마다 불이 되면 진도 앞바다는 말이 딱한 봄 꽃게가 풍어를 이루며 어민들도 만산을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꽃게의 kg당 소비가 판매가격은 1만1000~1만3000원선이다.

진도군은 18일부터 3월 동안 서망항 일원에서 제4회 꽃게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진도=박형영기자 hypark@

## 완도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청신호

### 출향인사·군민들 기부·기증 잇따라

### 37개 기관단체 등서 1억2300만원 성금도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앞두고 군민과 출향인사들의 기부·기증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기부·기증이 박람회 성공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완도군은 기대하고 있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조류박람회법민간지원협의회가 출범하고 군민참여 열기가 고조되면서 자발적인 성금 기부는 물론 화분, 경관 묘목, 다시마비누 등 현물 기증이 계속되고 있다.

군은 우선 올 초 시작한 화분기증 운동을 통해 주민들이 기증한 2411개의 화분에 천리향, 철쭉, 리빙스턴데이지 등을 식재해 가로변에 비치했다. 또 군외면 김용면씨가 7년생

조팝나무 1만5000주를 군에 전해와 국도 13호선 완도 진입 가로변에 식재, 내년 봄에는 하얀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완도를 이음테세는 구실잣밤 나무, 굴거리, 녹나무 등 800여주를 기증, 박람회 전까지 식재할 예정이다.

성금기탁도 줄을 잇고 있다.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37개 기관단체, 마을, 개인 등 단계각층에서 총 1억2300만원의 성금을 기증했다.

후원 문의는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사무국(061-550-5405)으로 하면 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어린낙지 4000여마리 방류

### 매년 어획량 급감으로 '귀하신 물'이 된 낙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5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과 무안군 관계자, 어민 등이 무안군 해제면

탄도면 해역에서 어린낙지 4000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 어린낙지는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가 지난 5월 어미 낙지 400여마리에서 산란과 인공부화를 통해 얻은 1만마리 가운데 일부다.

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이 참여했다. 자은면 주민들의 부채춤으로 시작돼 어르신 낚시대회, 율놀이, 돼지 및 닭잡기, 과자따먹기, 큰 콩 굴리기, 노래

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모(74) 할아버지는 "생계에 지치고 소외 받은 노인들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해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slee@

## 신안 자은면 '노인의 날 행사'

### 1300여명 노래자랑 등 다채

신안군 자은면은 15일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10일 어르신 1300여명을 모시고 두모체육공원에서 노인들

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이 참여했다. 자은면 주민들의 부채춤으로 시작돼 어르신 낚시대회, 율놀이, 돼지 및 닭잡기, 과자따먹기, 큰 콩 굴리기, 노래

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모(74) 할아버지는 "생계에 지치고 소외 받은 노인들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해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 전북

#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허송세월'

### 김관영 의원 지적...국토부 협상전략·대응책 없이 1년간 미군 핑계만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애꿎은 시간만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군산) 의원은 15일 "국토부는 미군과의 협의를 이끌어낸 그 어떤 전략과 대응이 1년이란 세월만 허송으로 보냈다"며 "주무부처로서 국토부의 미온적 태도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열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가 미군의 원론적인 대답에 끌려 다니는 측면이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의

했다"고 설명했다. 그 뒤 "국토부는 어떠한 실질적인 협상전략과 대응책도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각 부처 실무진들과 협의 후 나에게 보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국토교통부가 각 해당부처는 물론 지역주민과 국외간 협력의 필요성을 텐데 오지 않았던 것은 추진에 자신이 있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국토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ICAO에 미군 측 주장내용을 보내 한달 남짓 답변만 기다리다 6월말 당사자간 협의할 내용이라는 말만 들었다"며 "3개월

이 넘는 시간동안 멍하니 있는 상황이다. 대체 무슨 전략이 있고, 무슨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국토부, 외교부, 국방부와 회의하면서 분명히 말했다"며 "외교적, 군사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국토부가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각 부처의 협조는 물론 국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로 열심히 뛰면서 미군을 감동시켜야 한다"면서 "중합감사 때까지 국토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라"고 주문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남원 농특산물 미·독서 판촉전

### 허브유자·복분자 등 45t 1억여치 판매 성과

남원시는 최근 미국·독일에서 가진 농특산물 판촉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남원시는 3~10일 미국 하와이 키아모쿠 마켓과 독일 뒤셀도르프 김스아시아 매장 등 4개 매장에서 남원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를 벌여 45t에 1억3000만원 상당의 판매성과를 올렸다.(사진)

판촉전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한 신선농산물, 허브유자·복분자·생강·대추차, 황진이주, 막걸리, 지리산에서 채취한 각종 나물류, 떡국, 떡볶이, 목 등 각종 가

공식품 등을 판매했다. 시는 사전홍보로 유럽 전역에 발간되는 유로저널과 하와이 현지 한인 라디오방송국에 홍보하는 등 남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남원시는 이번 판촉전을 계기로 독일·미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에 물류비·포장재 지원,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으로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시장·군수협,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반대 입장 재확인

전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송하진 전주시장)는 충남도와 서천군이 주장하는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15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농업·공업 용수 확보 대안이 없는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을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은 이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반대하고 있다"면서 "충남도와 서천군은 연간 6억톤에 달하는 농업·공업용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해수유통을 쟁점화, 지역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해수 유통이 되면 염분의 확산으로 농업·공업용수 공급이 전면 중단돼 전북과 충남의 산업경제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청도문화원 문화교류

### 순창문화원(원장 김기근)과 청도문화원(이복수) 임원 및 회원 100여명은 14일 (주)대상 청정원 순창공장을 방문, 우의를 다졌다. 두 문화원은 이에

앞서 순창군민회관 향토관에서 난타공연과 댄스스포츠 공연을 통해 문화교류를 했다.

순창문화원(원장 김기근)과 청도문화원(이복수) 임원 및 회원 100여명은 14일 (주)대상 청정원 순창공장을 방문, 우의를 다졌다. 두 문화원은 이에 앞서 순창군민회관 향토관에서 난타공연과 댄스스포츠 공연을 통해 문화교류를 했다.

(순창군 제공)

## 단신

### 정읍 '단풍미인 수박' 전국 최고 명품수박 인정

정읍시는 지역 특산품인 '단풍미인 수박'이 농촌진흥청의 탐 과채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전국 최고의 명품 수박으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단풍미인 수박은 맛과 생산기술, 시설 등 각종 평가항목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정읍시는 설명했다.

단풍미인 수박은 맛과 생산기술, 시설 등 각종 평가항목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정읍시는 설명했다.

단풍미인 수박은 맛과 생산기술, 시설 등 각종 평가항목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정읍시는 설명했다.

다. 이번 선정으로 정읍시는 2억원의 지원받아 시설 개선, 품질 개발 등을 하게 된다.

정읍지역 농산품의 탐 과채 선정은 2009년 배, 2012년 사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군산해경, 선박입·출항 자동신고시스템 가동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부터 어선에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이용, 별도의 신고 없이 선박 출·입항신고를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출입항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되며, 전자해도에 나오지 않는 선박은 현재

처럼 수동으로 신고를 한다. 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출항 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단말기를 켜고(ON) 입항 후에는 끄면(OFF) 된다. 군산해경은 지난해부터 5t 이상의 어선 600여척에 발신장치 설치를 마쳤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3개 마이스터고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전북도내 3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201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 한국경마축산고가 18일까지 모두 5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북기계공고는 폴리메카닉스와 60명, 컴퓨터응용금형과 80명, 산업플랜트과 40명, 로봇자동화와 120명

등 300명을 모집한다. 이중 사회통합전형으로 30명을 뽑는다. 군산기계공고는 자동차기계과 60명, 기계설계과 40명, 조선산업설비과 40명, 선박전기과 40명 등 180명을 모집하며 18명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는다. 한국경마축산고는 말산업과 40명을 선발하며, 이중 사회통합전형이 4명이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남원보건소,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서비스 지원

남원시보건소가 재가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시 보건소는 매주 화요일을 '가정방문의 날'로 지정해 재가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 재활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정방문 재활서비스는 방문간호사 등이 보건사업 추진시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 보건소 재활사업팀에 의뢰하면 전문인력(물리치료사)이 가정을 방문해 양질의 서비스를 말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